

제3강: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논쟁 II

◆1교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논쟁 4

▲ 대화편의 바탕에 깔려 있는 가설들

(청중 낭독)

사실 이 대화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지 않지만,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영혼의 통일성이지요. 인간 영혼의 통일성. 어떤 한 사람의 영혼이 여러 덕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건하거나 경건하지 못하고, 지혜롭거나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덕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이 여러 덕성들이 어떤 통일성 없이 분열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겠죠.

프로타고라스는 영혼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쪽에 서있고 소크라테스는 어떻게든 그것을 묶어 통일성을 부여하려는 쪽에 서있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은 메논으로 이어지고, 파이돈에 가서는 형이상학적인 가설을 통해 정리됩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그 문제가 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지혜나 분별, 정의, 경건. 그런 것들은 같이 갈지 몰라도, 소크라테스 말처럼 같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 용기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프로타고라스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죠. 사실 현상적으로 봐도 용기가 뛰어난 사람과 지혜 등이 뛰어난 사람은 다르죠. 현실적으로 봐도. 지혜, 분별, 경건 등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정의는 조금 따져봐야 하지만요.

문관과 무관이 있잖아요. 문관에게 요구하는 덕성과 무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르죠. 무관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용기가 없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문관이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머리가 나빠도 그것도 좀 아니죠.

분명 그런 이질성은 존재하죠. 어찌 보면 현대인들은 그런 이질성에 상당히 익숙하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내면, 영혼이 분열되어 있고 복잡화되어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죠.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표현되기도 하죠.

소크라테스의 문제의식은 현대와는 다르겠지만 고대에도 덕성들 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타고라스는 용기라는 것이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소크라테스는 어떠한 얘기를 하나 하면, 용기라는 것도 지혜가 동반될 때에만 용기라는 거죠.

물에 대한 지식 없이 - 이때의 지식이란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아니죠- 물을 아는 거죠. 물을 알지도 못하면서 수영하겠다고 바다에 뛰어들면 죽겠지요.

저돌적인 용기가 있어야만 용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기라는 덕성을 지혜로 포섭하면서 영혼의 이질성을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극복하려고 하는 논법을 펴죠.

흥미로운 대목이죠. 심지어는 용기라는 것은 곧 지혜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알았을 적에 용기가 생기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물을 알아야 물이 무섭지 않죠. 용기가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무리수지요.

전쟁을 잘 알아도 겁이 많을 수 있죠. 소크라테스가 너무나 통일성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지혜로 모든 것을 수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교과서적인 철학에서 흔히 말하는 얇이 덕이라는 논제이죠.

그것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지혜가 곧 덕이다.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 같은 사람은 나중에 그 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지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하여튼 용기라는 것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지혜로 수용해서 덕성들과의 통일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주된 주장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로 옮겨 가냐 하면요,

좋음과 나쁨에 대해서 얘기가 옮겨 가게 되죠. 프로타고라스가 용기라는 것은 좋은 양육과 뛰어난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삶에서의 좋음이란 무엇이냐고 하죠.

arete에 대한 물음에서 좋음에 대한 물음으로 옮겨가죠. 결국은 쾌락과 고통 및 선과 악. 전에 얘기했지만 선과 악은 회랍 사람들의 어감에 비해 강한 번역이죠. 좋음과 나쁨이 더 적절하죠.

선과 악은 기독교 사상이 등장하면서부터 명시적으로 등장한 것이고, 회랍적 어감에서는 좀 강한 표현이지요. 하여튼 선과 악, 쾌락과 고통을 얘기하면서 쾌락은 좋은 것이고 고통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런 식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 쾌락주의이지요. 나중에 소크라테스 철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극단적인 쾌락주의이지요.

원래 소크라테스의 논지와는 좀 거리가 있게 되지만. 여기서는 쾌락과 선을 연관시키고 있

어요. 그 다음에 약간 더 읽어볼까요.

(청중 낭독)

여기서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앎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앎을 강조하는 한 방식이 알지만 무엇무엇한다는 것이죠. 나쁜 것을 알지만 좋은 걸 어찌냐. 이런 논법이지요.

그게 어찌 보면 인간사의 기본적인 것이지요.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옳은지 알지만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소크라테스의 이론은 좀 특이해요.

알지만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주장입니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쉽지 않은 주장이지요. 보통의 상식으로요. 알지만 자신의 쾌락에 저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소크라테스가 보기엔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하면, 몰랐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이냐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측정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지만, 그 상황이 쾌락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와 그것을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줄 알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선악을 측정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용어가 현대의 어감에 안 맞죠. 계량이나 측정. 무슨 실험적 용어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techne는 기예지요. 사리판단을 할 줄 아는 것에 가깝죠. 계량이란 것도 적도, 적당한 정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적도라는 것이 서구적인 사고의 특징인데요. 동북아 사람은 이런 주장에 좀 어색하죠. 쟈다는 표현 정도죠. 서구적이고 그리스적인 사고지요. 쟈다는 것, measure는 박홍규 선생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이지요.

정확하게 쟈 수 있는 식의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치의 문제가 주관적인 감성이 아니라, 근거 있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measure한다는 것은 질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요.

말처럼 쉽지 않죠. 어떻게 개량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중용사상으로 가죠. 적도를 아는 것이 중용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만용과 비겁의 중용, 탐욕과 절제의 중용. 이런 말 많이 하죠.

처음에는 영혼의 통일성, 덕성들 사이의 통일성의 문제로 시작했던 것이 용기의 이질성 문제로 갔고. 그 문제를 얘기하다가 또 지혜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가 표류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지혜라는 것의 특권적 위치, 중심적인 위치를 생각하지요. 그 지혜가 반드시 동반해야만 할 기에 내지 능력으로서의 계량술. 이런 것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기에게 진다는 것은 아는 데 쾌락에 진 것이 아니라 무지에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이긴다고 할 때 지식의 문제로 보지 않죠. 지식보다는 의지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지식으로 할당하고 있죠. 소크라테스 특유의 생각이죠.

현상의 세계는 생성하는 세계입니다. becoming의 세계는 계량이 불가능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책을 자로 길이를 재려면 고정되어 있어야 하죠. limit가 있어야 하지요. 현상의 세계는 becoming이기 때문에 계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간단히 하고 넘어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상세계는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데아적인 세계로 가서 측정을 정확히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무언가를 파악해야만 그것을 갖고 이 세계에서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논리전개에 있어서 추상적인 구조가 통하는 것은 있어요. 칸트 같은 경우는 현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논리상으로 아주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청중 낭독)

원래 얘기의 출발점, 다섯 개의 덕성들 간의 통일성 문제가 그 중 용기는 다르다고 프로타고라스가 말했죠. 그리고 과연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용기가 용기이냐는 문제까지 갔죠. 얘기가 진행되다가 그러면서 얹히게 되고.

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이 가는 곳이 다르다는 얘기도 하게 되고. 결국 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이 가게 되는 곳이 다른 이유는 지식이 다르고 거기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용감한 사람은 전쟁을 향해 자의로 가면 비겁한 사람은 자의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76쪽에 보면요. 그러므로 용감한 사람과 비겁한 사람의 차이는 무서운 것에 대한 지식의 유무에 기인하다는 겁니다. 무지는 비겁을, 올바른 지식은 용감을 초래한다. 용기라는 것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영혼의 기능이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죠.

그리고 지혜야말로 아름다운 영혼의 내실을 이루며, 용기도 지혜에서 연유한다고 하죠. 이

것이 사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얘기를 전개하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요.

첫째는 영혼이라는 것의 기능. 좋은 영혼이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것이라는 말이지요. 한 인간이 자기 내면에 갖고 있는 요소들을 불균형하게 균열된 방식으로가 아니라 조화롭게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프로타고라스가 별개로 보았던 용기도 결국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영혼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지혜야말로 정말 영혼의 내실을 이루면서 정의, 경건, 절제 등도 지혜가 동반될 때에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여럿이 있는데요. 이 여러 개를 아예 다르게 보는 방식이 있고요. 프로타고라스는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한 거죠. 그러나 용기만은 무언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몰고 가죠. 이 여럿의 차이는 사실 피상적인 것이고 현상적인 것이고 사실 하나라는 거죠, 그 중 하나가 특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다른 특권을 가진 이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논법입니다. 다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일자성을 강조하는데요. 일자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이것들 사이의 차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르긴 다르다고 구분하면서도 어느 하나가 약으로 말하면 감초의 역할을 하듯이 이것들을 하나로 다 묶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소피아라는 겁니다.

통허자라고 할까요. 전체를 통허(通許)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바깥의 큰 원은 덕입니다. arete. 특히 지혜가 동반될 때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보는 주지주의(主知主義), intellectualism이지요.

오늘도 만약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면, 예컨대 군인도, 스포츠 선수도, 예술가도, 정치가도 지식을 핵심으로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필수적으로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는 주장이 되지요.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요.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는 스포츠만 잘 하면 된다.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생각에는 스포츠 선수도 지혜가 동반되었을 때에 스포츠를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식, knowledge는 그 사람이 사업가든 예술가든 스포츠 선수든 군인이든 공통과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은 “박지성이 공부 잘 한다고 축구 잘 하나. 축구만 잘 하면 되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죠.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 무언가 중심이 있다. 그러나 그게 sophia 가 아니라고 하죠. 공자라면 인(仁)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든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기본적으로 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겠죠.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어떤 인간이 뛰어난 인간인가의 문제죠. 골치 아플 것 없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박지성이 축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쓸데없이 다른 거 잘 해서 무엇하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덕성이 다 통일되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된 인간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통일되려면 무언가 하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굉장히 intellectual하게 얘기하는 거죠. 공자 같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니체 같은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지혜에 특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리스의 디오니소스적인 정신, 바그너의 악극에서처럼 활화산의 폭발 같은 것을 다 사장(死藏)시켰다고 비판합니다. 아폴론 식으로요.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소크라테스 자신이 덕을 가르칠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 본유설(本有說)과 보편성에 관하여

마지막에 가면 두 사람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되어서 '너와 나'에서 '우리'가 됩니다. 같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신화는 봤지요. 프로메테우스가 헤파이토스에게 불을 훔치고 아테네에게서는 기술을 훔쳐 인간에게 줬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 지혜와分別력, 정의감을 주었다는 거죠.

중용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에게 제기한 문제이죠. 덕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죠. 전문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죠. 책을 만드는 지식은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죠. 가르칠 수 있죠.

수영도 가르칠 수 있죠. 다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덕성은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이 대화편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지요. 덕성을 가르칠 수 있다면 왜 뛰어난 정치가의 자식들이 저렇게 변변치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교육과 교양교육의 문제지요. 요새 말로 표현하자면 물리학 등의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요. 과연 덕성이란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덕이 없던 사람이 덕성을 쌓는다고 해서 덕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프로타고라스가 신화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우스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신화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본유설(本有說)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하지요. 인간이라는 것이 지각(知覺)도 하지만, 지각은 다른 동물도 하죠. 기억도 다른 동물도 하지요. 그런데 상상 정도까지 가면 그것은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이론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심리적, 예술적인 능력은 인간만의 것이죠. 다른 동물에게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죠. 그것이 신으로부터 왔다. 원래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본유설은 증명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꼭 신을 끌어들이죠. 신이 인간을 만들 적에 인간의 영혼에 주어주었다고 하죠. 사실 그것을 설명의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진화설(進化說)이죠. 계속 진화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것도 언제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죠. 그냥 우연이라고 밖에는 말 못 하죠.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간의 진선미(眞善美)를 도대체 어디서 구비하게 됐는가. 거기서 플라톤은 본유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명이 어려우니까 신화를 끌어다 써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성이지요. 예를 들어 노래를 잘 하는 능력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잖아요. 파바로티 같은 사람들. 축구를 잘 하는 능력은 박지성이나 지단 같은 사람에게만 주고. 그러나 덕성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보편성이지요.

◆2교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논쟁 5

▲ 인간만의 독특한 능력들에 대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프로메테우스 신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박홍규 선생의 해석이 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를 일별하건대, 프로타고라스가 말한 사람의 본성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과 판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크라테스가 주장하는 사람의 유능성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이성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이다. 유능성이란 사람의 사람다움의 극한치로서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사람다움의 실현이다.

유능성은 가르쳐질 수 있으며 지적 파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 작용 이전에 작용을 지배하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용은 현상을 넘어서 있으며, 현상계의 영혼이 끊임없이 동경하고 지향하는 대상이다.

이런 프로타고라스의 신화를 일별해 보면, 이렇게 의미부여 하고 있는 겁니다. 82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청중 낭독)

지금 읽은 이 대목은 사실 프로타고라스 신화에 대한 박홍규 선생의 해석이죠. 신화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프로타고라스의 신화는 진화론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요.

약간 진화론적 해석인데. 신이 주었다고 표현했지만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룩한 것의 일원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거죠. 사자처럼 큰 발톱도 없지요.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가 있나. 피부는 약해 빠지고.

인간이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킨 이유는 오히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다른 동물들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다 보니까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의견이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불을 다루는 능력, 기술이죠. 두 번째가 정치술이죠.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치술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회를 만들어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인간의 두 가지 능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삼차적인 것을 붙인다면 문화를 말할 수 있겠죠. 놀이를 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지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 다른 동물과 다른 고유의 영역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듯 프로타고라스의 신화를 좀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arete의 부분과 전체의 문제. 프로타고라스의 대화편이 가장 산만한 대화편 중의 하나입니다. 구성이 산만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양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플라톤의 극작술이 아직 원숙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서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충실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대화편에 나타나는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 소크라테스의 모

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어떤 때는 상당히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요. 논리적으로 비약하기도 하고. 이것이 구성의 빈약함인지, 묘사의 충실성인지. 아주 미묘한 문제지요. 아무튼 산만해요.

그런 와중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는 화두는 하나지요. 덕의 통일성과 이질성이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가 지혜, 경건, 절제, 정의 등의 유능성에 있어서 성립하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가 금덩어리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얼굴에 있어서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인지지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homogeneity와 heterogeneity의 문제. 등질성과 다질성의 문제지요. 금덩어리는 잘라도 양만 달라지지 질의 변화가 없지요. 그러나 만약 얼굴을 자르면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 식으로 등질성과 다질성의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등질성으로 본다면 지혜가 곧 절제고 정의고 경건이겠죠. 그렇게 되면 각 덕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없어지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마치 얼굴의 눈, 코, 입이 갖고 있는 덕성과 같은 것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유능성을 유기체적인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유기체적인 단어는 굉장히 근대적인 단어지요. 사실은 조화의 측면이죠. 덕성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히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다른 덕성들을 잘 보듬어서 따로 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의견인 거죠.

이 물음에 의미가 있다면 하필이면 얼굴에 비유를 했는지에 대한 박 선생의 해석이 재미있죠. 추측컨대 사람의 얼굴에는 눈과 같은 인식기관이 있고, 그 사람의 의지를 알아볼 수 있으며, 경건한 표정을 통해서 경건한 마음을 알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능성의 관계를 유기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얼굴에 비유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박홍규 선생의 해석과 같이 한다면 플라톤이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볼 적에는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얘기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박홍규 선생처럼 해석한다면, 이 덕성들 뒤에 진짜 무엇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눈이 마음을 표현하고, 귀가 표현하고, 의지가 표정에 나타나게 되죠. 이 뒤에 있다는 것까진 얘기하지 않는 것과 얼굴이 있는데 이 뒤에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플라톤의 얘기에 조금 더 추가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정의, 경건, 절제 등의 뒤에 다른 알맹이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플라톤의 의견에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동물의 얼굴과 달리 여러 표정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절도 있게 보인다. 사람의 얼굴은 사람이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위의 유용성은 눈과 귀처럼 그 성격과 기능을 달리한다.

(청중 낭독)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차이를 정리를 해주고 있죠.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지혜와 절제를 동시에 뜻하는 말을 쓰죠. 이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여서 복잡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소피아는 수준 높은 지혜를 뜻합니다.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르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말에서 지혜와 절제의 동일성을 꺼냅니다. 그리고 다른 덕성들과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 같은 사람은 상대주의를 말하죠. 덕성들 사이의 이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경우, arete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혜에 속하지만, 프로타고라스는 지혜를 잘 발휘한다는 것은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논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혜를 잘 사용한다는 말은 의미가 조금 엇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용기를 지혜로 환원시키죠. 그런데 용기를 지혜로 환원시키는 것은 박홍규 선생에 따르면 지혜와 행동이 일치하는 어떤 이상적인 경계를 전제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행위가 지식과 완전히 일치할 경우에는 저 사람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지식이 있냐 없냐만 봐서는 알 수 없죠. 이 문제도 묘한 경우죠.

용기라는 것을 지혜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소크라테스와 용기를 동물적인, 선천적인 것으로 보려 하는 프로타고라스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 설사 지혜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움을 받는 것이지, 용기가 곧 지혜는 아니지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비겁한 것은 비겁하다는 거죠. 그것이 서로 다른 점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혼의 성격이죠.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일시키려고 하고, 프로타고라스는 영혼이 갖는 복잡성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죠. 프로타고라스 같은 입장이 훨씬 현대적이죠.

▲ 프로타고라스와의 대화편이 갖는 의미

(청중 낭독)

프로타고라스와의 대화편은 소크라테스가 arete라는 것을 화두로 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죠. 단 소크라테스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프로타고라스의 비중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는 것이 특성이죠.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논의보다는 소크라테스적 대화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체와 부분이라든가, 등질성과 다질성의 문제. 그 다음에 부정의 문제들이 깔려 있지요.

소크라테스적인 대화편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얘기되고 있지 않지만 핵심이 되는 것은 영혼이죠. 영혼의 문제와 덕의 문제.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핵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존재론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지요.

이것을 좀 더 보충하려면 메논편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박홍규 전집에는 메논이 나오지 않아서 읽진 않았지만요.

용기라는 것이 좀 더 특화되어 나와 있죠. Laches라고 하죠. 이것이 특화되어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 큰 내용은 없는 대화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덕의 통일성이 결정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문헌이 메논편입니다. 덕의 통일성 문제가 다루어지고 이것이 다루어지면서 영혼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얘기로부터 플라톤으로 넘어갑니다. 과도기적인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산기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영혼론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성격을 띠면서 확립되는 것이 파이돈편입니다. 소크라테스적인 문제의식이 어떻게 플라톤의 존재론으로 이행해서 이데아론으로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 과정을 추적해 보는 것이 도움을 주지요.

그래서 저 이후부터 나온 것이 플라톤의 원숙기라고 할 수 있지요. 다음 주에는 대화편 자체를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전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짧으니까 한 주일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